



클래식 음악가

츨파텡

소개글

각각의 음악가를 소개합니다.

목차

1	모짜르트	4
2	베토벤	9
3	요한 세바스찬 바흐 - 독일 작곡가	15



1762.1.7

여섯 살 생일을 앞두고 뮌헨으로 첫 번째 연주여행을 떠나다

그의 음악은 길 위에서 만들어졌다. 35년을 산 모차르트의 연보만 보아도 거의 매년 연주와 작곡 여행을 떠났다. 1762년 1월 7일은 모차르트 가족과 함께 뮌헨으로 첫 연주여행을 한 날이다. 신동의 등장으로 문은 열광했고, 같은 해 10월 6일 모차르트 가족은 빈에 머물면서 신트궁에서 어전 연주를 한다.

세상의 모든 길은 그의 음악이 되었다



1765년 음악 신동으로 유럽을 놀라게 한 9살의 모차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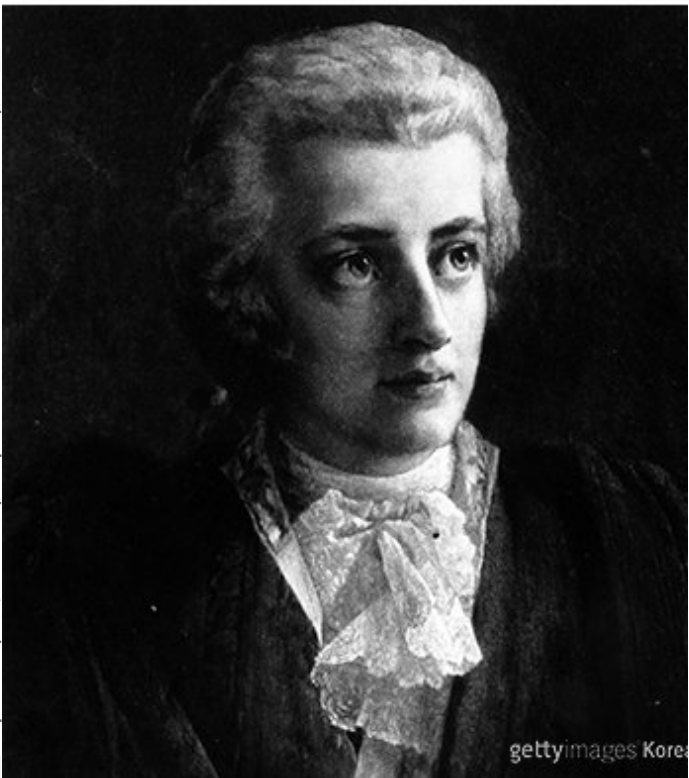
천방지축 모차르트가 궁전에서 넘어졌을 때,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공주가 있었다. 모차르트는 나중에 커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는 말했는데, 당시 동갑내기이던 공주는 바로 [마리 앙투아네트](#)였다. 그의 품으로 보아 더한 말도 했을 것이다. 모차르트는 이 여행을 시발점으로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 전 유럽을 돌이켰다. 여행 시기를 중심으로 그의 음악을 설명할 수도 있다. 많은 여지 중에서도 모차르트는 이탈리아와 프라하를 무척 사랑했다. 그에게 행은 음악가로서 완성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여행지에서 대위법 비롯한 음악 공부를 하고, 위대한 선배 작곡가들을 접하고, 여행을 하길 위에서도 작곡을 했다. 그의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예술이나 과학을 하는 사람은 여행을 지 않으면 비참해지거든요.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일 대주교가 저게 2년마다 여행을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어떤 자리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여행을 하든 하지 않든 큰 상관 없습니다. 다만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도 신성 모은 아니라고 봅니다-은 늘 같은 곳에만 머물면 나빠집니다.” 공자, 부처도, 예수도 모두 길 위의 사람이었다. 거기에 모차르트를 더한디 신성 모독일까?

친구는 필자인 나에게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라고 했다. 간헐적으로 우울해하는 나를 잘 아는 오래된 친구의 말이다. 나는 듣고 있던 [차키](#)(차이콥스키는 모차르트를 듣고 음악가의 길을 걸었다고 했다)의 음반을 치우고 모차르트의 [프리메이슨](#) 음악 음반을 잘 닦아서 턴테이블에 놓았다. 모차르트는 그렇게 우리 곁에 있었다. 모차르트의 음악에는 어떤 수사나 찬사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를 천재라고도 말할 수 없다. 그 악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모차르트에 대한 수사는 그의 음악에 비하면 먼지와 같이 가볍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모차르트에 관해 글을 쓰기를 일체 거부했다. 이유는 ‘그를 숭배할 뿐’ 이기 때문이다. 모차르트의 인생에 대해서 쓴다는 건, 어쩌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모차르트 역시 예수처럼 ‘사람’으로 태어났다.

신의 은총을 받고 태어난 아기, 그 이름은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1756년 1월 27일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게트라이데 거리 9번지에서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와 어머니 안나 마리아 모차르트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아들로 태어났다. ‘요하네스 크리스토포투스 볼프강 고트리프 모차르트’가 이 아들의 정식 이름이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아마데우스라는 두 번째 이름은 ‘신의 은총’이라는 뜻으로 독일식 이름인 고트리프를 라틴어로 바꾼 것이다. 모차르트는 생전에 라틴식인 아마데우스 대신 프랑스식인 아마데를 즐겨 썼다.



아버지 레오폴트는 다섯 아이를 유아기에 저세상으로 보내야 했다. 이 시기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형제들의 폐죽음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 일곱 번째 아들인 모차르트가 무사히 유아기를 넘긴 것만으로도 이들 부부에게는 축복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모차르트의 누나 역시 유아기를 무사히 넘겼다. 게다가 이 사내아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다섯 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1761년 1월 26일 저녁 9시 30분, 미뉴에트와 트리올로 30분 만에 다 익혔다”라고 놀라움에 겨워 일기를 쓰게 했다. 이렇게 귀한 아들의 존재는 하이든같이 위대한 음악가가 되고 싶었던 아버지의 한을 풀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들 부자 사이에는 애증의 그림자가 깊었다. 모차르트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를 떼어놓으면 이

19살의 아름다운 청년 모차르트

야기가 이어지지 않는다. 이 천재 아들은 아버지의 자랑이기도 했지만, 집안의 재산이기도 했다. 여섯 살 때부터 이어진 연주 여행을 다녀오 행 잔고가 두둑이 쌓였다. 심지어 아버지는 아들이 성장한 후에는 육체적으로 이성을 그리워하는 것마저도 두려워했다. 그가 결혼하는 것조차 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모차르트는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항상 사랑을 찾아다녔다.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으로 사랑을 만들어주었다.

사랑을 보여주고, 들려준 음악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한마디로 감히 표현한다면 ‘사랑’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그 사랑은 인간의 육체를 음률로 만들어 귀로 듣게 하는 것 아니라, 온몸으로 듣게 한다. ‘느낀다’라고 표현하는 건 부적절하다. 피아노 소품부터 실내악, 협주곡, 교향곡, 오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일 는 서양음악의 모든 장르를 통틀어, 각 분야의 전문가마저도 감탄시키는 그의 음악적 경지는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현악사중주에 곡이 있다든지, ‘마술피리’ 같은 오페라 한가지로 모차르트를 설명하기엔 너무 빈약하다. 대주교의 요청을 받고 작곡한 미사곡까지 모차 손을 거치면 선율이 생생한 생명력으로 요동치면서 특별한 음악, 즉 모차르트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천재성에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과연 아들이 오래 살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1778년 2월 16일 레오폴트가 아들 모차르트에게 보낸 1 본다. “어린 시절 너는 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른스러웠으며, 네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거나 음악감상에 몰두하고 있을 때면 아무도 너에 담조차 걸 수 없었다. 심지어 너무나 엄숙한 네 연주와 일찍 개화한 네 재능, 생각에 잠긴 진지한 네 작은 얼굴을 지켜본 여러 나라의 많은 1 은 네가 오래 살 수 있을지 걱정했다.” 이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모차르트는 35년을 살았다. 하지만 이 인생은 350년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인생이었다. 짧다면 짧은 그의 삶에 음악 목록이 풍부한 이유는 우리로 치면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한 작곡 덕분이다. 이 천재는 후반생인 1 결작을 쏟아냈다. 그의 마지막 오페라인 ‘마술피리’를 비롯해 ‘주피터 교향곡’, 미완성으로 끝난 레퀴엠에 이르기까지 모차르트는 죽어기 간까지도 악보 위에 모든 걸 쏟아 부었다.

예술가를 하인 취급하던 시대를 산 진정한 프리메이슨이자 자유인

모차르트 당대의 음악가들에게는 주인이 있었다. 예술가들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어져 있어서 후원자 없이는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모차르트는 2명의 후원자를 섬겼는데, 첫 번째는 슈타덴바흐의 백작 지기스문트였다. 음악 애호가인 그는 열정적으로 모차르트를 지원했다. 그러나 지기스문트 백작이 사망하고, 콜로레도 백작 히에로니무스 대주교가 후원자가 되자 관계가 악화되었다. 하지만 이 일은 모차르트에게 자유를 주었다. 헨델 이후 공식적인 후원 없이 자립을 감행한 최초의 작곡가가 되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황제 요제프 2세가 모차르트를 궁정 작곡가로 임명했는데, 이 때 ‘후궁으로부터의 탈출’을 작곡해 초연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 시기에 모차르트는 평생 반려자인 콘스탄체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아버지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1782년 8월 4일에 성 슈테판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콘스탄체는 오래 살아 사후까지 몇 장 남겼다. 그녀는 남편 명성을 아주 잘 누리고 살았다. 그래서 그녀를 악처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두 사람의 애정은 각별했다. 부부의 일은 두 사람만이 아는 법이므로 이런저런 평가는 별 의미가 없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내로 맞은 콘스탄체의 초상화(1802년)

프 2세가 모차르트를 궁정 작곡가로 임명했는데, 이 때 ‘후궁으로부터의 탈출’을 작곡해 초연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 시기에 모차르트는 평생 반려자인 콘스탄체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아버지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1782년 8월 4일에 성 슈테판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콘스탄체는 오래 살아 사후까지 몇 장 남겼다. 그녀는 남편 명성을 아주 잘 누리고 살았다. 그래서 그녀를 악처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두 사람의 애정은 각별했다. 부부의 일은 두 사람만이 아는 법이므로 이런저런 평가는 별 의미가 없다.

모차르트는 명성에 걸맞게 많은 돈을 벌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돈을 리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유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은, 즉 과소비의 화신이었기 때문이다. 당구, 고급 옷, 파이프 담배, 여행 등으로 인생을 즐겼다. 당시 빈의 상류층은 18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된 서민주의적, 인도주의적 우애를 목적으로 하는 비밀 결사 단체인 프리메이슨 단원이 많았다. 모차르트 역시 1784년 12월 프리메이슨에 가입했다. 이미 도시에 크고 작은 8개의 지부가 있었으니, 당대 프리메이슨 영향력은 대단했다. 모차르트 지지자들인 귀족들도 프리메이슨 단원이었다. 모차르트는 프리메이슨의 도제로 입문하여 미숙련 장인으로 승급하고, 숙련 장인인 메이슨의 지위에 올랐다. 천방지축이긴 했지만 모차르트는 매우 성실하게 모임에 참석해 노래, 칸타타, 장례 음악 등을 지냈다. 이후 그의 음악에 프리메이슨의 정신이 녹아들었다.

크게 성공한 작품 가운데 하나인 오페라 ‘마술피리’ 역시 마찬가지다. 모차르트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프리메이슨이라는 비밀 결사 단체를 못하면 그의 음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모차르트는 아버지 레오폴트를 프리메이슨에 가입시키기도 했다. 그의 작곡 기록부에 기록된 작품은 ‘작은 프리메이슨 칸타타’ 다.

사람으로 죽어, 신성의 경지에 오르다

1791년 여름, 모차르트를 찾은 한 방문객이 모차르트에게 레퀴엠 작곡을 의뢰한다. 익명의 후원자가 신분을 감춘 채 비밀스럽게 제안한 것이었는데 그해 겨울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나고 만다. 죽어가는 뮤즈에게 장송곡인 ‘레퀴엠’을 의뢰하다니... 매우 시적이고 드라마틱한 그 일이 모차르트의 삶을 더욱 신비롭게 만든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았던 궁정 음악가 살리에리가 그의 재능을 질투하여 벌인 일설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씘령하다. 발제크 백작이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레퀴엠 작곡을 의뢰한 것이었는데, 그는 작곡가들에게 의뢰

품을 마치 자신이 작곡한 것처럼 위장해 개인 연주회에서 연주한 무뢰한이었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시신이 공동묘지에 던져진 것도 당시 장례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칙령에 의한 것이었을 뿐 그리 비참한 최후는 아니었다. 다만 대천재의 장례치고는 어딘지 부족한 것 같았다. 오히려 오페라나 고갱, 바르톡 같은 예술가를 생각하면 모차르트는 불행하지 않았다.

모차르트는 심한 류머티즘 열 때문에 죽었다. 1791년 11월 20일 모차르트는 팔다리가 붓고 자주 구토를 하면서 자리보전을 하게 된다. 그로부름 후 뮤즈는 지상을 떠나 천상의 세계로 날아갔다. 그것은 마치 드라마틱한 오페라가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과도 같았다. 알잖은가. 아무리다운 공연도 막이 내려가면 적멸의 고요함이 다가온다는 것을. 모차르트라는 음악가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 후로 살아남은 자들의 몸과 그의 음악이 깃들었으니 나는 모차르트를 죽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천상의 존재였던 그가 잠시 지상에 다녀갔다고 말하고 싶다. 소풍을 나온 처럼 말이다. 다시 텐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걸어간다. 모차르트 음반을 쭉 살펴본다. 어떤 음반을 올려놓을까 생각하다 그냥 눈을 감고 아무이나 집어 들었다. 어떤 곡일까 궁금하지 않았다. 모차르트는 다 좋으니까.

필자가 추천하는 덧붙여 읽으면 좋은 책

[〈모차르트-음악은 언제나 찬란한 기쁨이다〉](#)(피터 게이 저, 푸른숲)

“천재성의 낭만적인 유혹을 견어낸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전”이라는 퍼블리셔스 위클리 서평을 받은 책이다. 천재, 아들, 종, 자유음악가, 거지, 거장, 극작가, 고전의 총 8개 장으로 구성해 그의 음악과 인간 모차르트를 이해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정영목의 유려한 번역도 이 책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모차르트
피터 게이저



모차르트 평전
필립 솔레르스저

[〈모차르트 평전-나는 다만 나, 곧 음악일 뿐이다〉](#)(필립 솔레르스 저, 효

형출판) 이 책을 펴낸 출판사의 편집장이 아마 읽으면 실망

할 거라고 하면서 보내준 책이다. 이유는 평전이라기보다는 소설에 가깝다는 것이다. 나는 웃으면서 속으로 ‘잘됐네’ 라고 생각했다. 이 책 딱한 평전보다는 부드러운 이야기책이라고 하고 싶다. 모차르트에 정통한 지식인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모차르트에게는 연서라는 말도 과언이 아니다. 모차르트를 이 정도로 이해하고 글로 써내는 저자의 해박한 지식과 애정에 감탄했다.



1805.4.6
교향곡 3번 <영웅>이 빈에서 초연된 전야(前夜)를 맞다

<합창환상곡>(1817)의 가사를 쓴 시인 크리스토프 쿠프너가 베토벤에게 물었다. “선생님의 교향곡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곡은 무엇입니까?” 베토벤은 대답했다. “에로이카!” <영웅교향곡>이라는 것이었죠. <영웅교향곡>일 거라고 생각했던 쿠프너는 되물었다. “C단조(<영웅교향곡>)가 아니구요?” 베토벤은 다시 한번 못박았다. “아니오, 에로이카요.”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베토벤 교향곡의 진정한 출발

1805년 4월 6일, 베토벤은 교향곡 제3번 <영웅>이 빈의 안 데아 빈 극장에서 초연되기 전날 밤을 맞았다. 베토벤은 스스로 지휘할 초연을 준비하는 데 큰 긴장에 빠져 있었다. <영웅>이 그가 만든 생애 최고의 역작인 만큼 베토벤의 기대는 매우 컸다. 그러나 다음날 공연이 끝난 다음 이 교향곡에 대한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 공연에 대해 [라이프치히](#)의 <알게마이네 음악신문>은 “너무 어렵고 생소하고 긴 곡이다. 전체적으로 밝아지고 지고 통일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인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있다” 라고 평했다. 그러나 베토벤은 실망하지 않았으며, 끝내 한 부분도 고치지 않았다. 다만 이 곡의 길이에 대해서는 마음에 걸린 바가 있었던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곡을 연주하려면 종래의 교향곡보다 두 배에 달하는 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베토벤은 나중에 출판된 악보에 ‘이 교향곡은 매우 길기 때문에 연주회 전반에 연주하는 것이 좋겠다’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이 곡을 연주하는 데 한 시간 가까이 걸리는 게 사실이지만, 머지않아 이 곡이 전혀 길지 않게 느껴질 날이 올 것이다.”

베토벤은 훗날 교향곡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5번 <운명교향곡>과 교향곡의 완성이라고 칭송받는 9번 <합창교향곡>을 작곡했는데도, 왜 <영웅>에 더 큰 애착을 느꼈던 것일까? 이 곡을 필두로 해서 베토벤이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음악사적인 이유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본인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연구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베토벤이 <영웅교향곡>에 특별한 애정을 가졌던 것은 이 작품

만큼 역작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임에 틀림없으며, 한편으로는 그가 평생을 몰두한 ‘영웅’이라는 주제를 가장 종합적으로 구현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실로 그는 많은 곡에서 ‘영웅’을 그렸다. 그의 영웅은 자신의 처절한 운명과 싸워야 하는 마음속의 영웅이자, 그가 염원해 마지않던 자유를 보장해주고 평등을 실현해줄 역사적 영웅이었으며, 나아가 진정으로 인류를 구원할 신화적 영웅이었다. 이 세 종류의 영웅을 종합·그렸을 뿐만 아니라, 영웅의 죽음과 부활, 세상의 구원을 입체적으로 노래한 <영웅교향곡>은 귀가 먼 불우한 음악가 베토벤의 운명에 대한 절규였던 것이다.

가혹한 음악교육을 받은 어린 시절, 8살 때에 첫 연주회 열다

베토벤은 흔히 ‘음악의 성인’ (樂聖)이라고 불리지만, 필자는 ‘음악의 영웅’이라고 부르고 싶다. 베토벤의 생애야말로 영웅의 일대기에 걸맞은 것이기 때문이다. 영웅 하면 일반적으로 [아킬레우스](#)나 [오디세우스](#),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등 전쟁영웅을 떠올리기 쉬우나, 나라를 세운 건국영웅의 교주나 성자 등 종교영웅, 인류의 문화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문화영웅도 영웅에 포함될 수 있다. 신화 속 영웅들은 대체로 신이한 탄생을 거쳐 출발하여, 시련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할 소명 의식을 갖고 수련을 위해 길을 떠나며, 집단으로 회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비범한 죽음을 맞이한다. 이 신화 속 영웅의 일대기가 현실의 영웅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이와 비슷한 생의 궤적을 그릴 때 영웅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깊이 각인된다.

음악의 영웅들은 어린 시절부터 보통 사람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모차르트가 여섯 살 때 이미 공개연주를 한 것은 유명하다. 모차르트보다는 못한 듯하지만 어린 시절 베토벤의 능력 또한 특별한 것이었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은 1770년 12월 17일 독일의 본에서 가난한 음악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베토벤은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베토벤의 아버지는 궁정 악장이 되었으나 그의 실력이 그리 출중한 편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욕망을 실현하고 싶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신동임을 내세우려고 아들의 나이까지 속였다. 베토벤은 마흔 살이 될 때까지 자신이 1772년에 출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여덟 살 때인 1778년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연주회를 갖게 되었는데, 주최측에서는 ‘궁정음악가 테너 요한 베토벤의 6세 된 아들 루트비히가 피아노 협주곡과 3중주곡을 연주할 것이다’라고 광고했다. 이 연주회의 성패는 자세하게 전해지지 않으나, 여덟 살 때에 이미 피아노 협주곡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다.

1804년 무렵 예술가적인 열정에 가득 차 있는 베토벤

어린 시절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였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시련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아버지 주정뱅이였고, 어머니는 병약했으니, 장남 베토벤의 어린 시절은 눈물겨운 고난 그 자체였다. 자식을 모차르트보다 유명한 음악가로 키우고 싶어 아버지의 음악 교육은 가혹했다. 아버지는 베토벤을 네 살 때부터 [클라브 생](#)(피아노의 전신) 앞을 떠나지 못하게 하거나, 바이올린을 주고 빙가뒀버렸다. 아버지께 대한 반항심이 컸다면 아마도 음악을 꿈쩍이도 싫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베토벤은 일찌감치 음악을 접하는 즐거웠다. 그러나 이런 아버지의 교육으로 인해 그는 학교 생활에는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오직 음악 속에서만 행복할 수 있었다. 열한 살에 극장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되었고, 열세 살에는 오르가니스트가 되었다. 열다섯 살에 벌써 동생들의 생계를 위하여 피아노 교습 등을 통해 돈어야 했다.

1787년 어머니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것은 베토벤에게 참으로 큰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어머니를

면서 그는 죽음의 의미와 생명의 유한성,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골똘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나중에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가엾어라! 나는 3살(사실은 열일곱 살이었다)에 벌써 죽음을 알고 있었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이 시기에 그는 정신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천재의 소명의식을 자각한 청소년 시절, 모차르트를 만나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다

열세 살에 작곡한 〈드레슬러 주제에 의한 피아노를 위한 9개의 변주곡 C단조〉가 최초로 출판되면서, 베토벤의 작곡 인생이 시작된다. 천재이라도 소명의식이 없으면 평범한 사람으로 자랄 수도 있다. 소명의식을 키워주는 이는 대체로 스승이다. 청소년 시절에 강력한 소명의식을 일깨워주는 스승이 있어야만 천재는 자신의 재능에 자부심을 갖고 더욱 정진하게 되는 것이다. 베토벤에게 소명의식을 부여한 스승은 크리스티안 고틀로페였다. 네페는 베토벤에게 음악의 중요성과 기술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부한 철학을 토대로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해서도 가르쳤다. 특히 모차르트와 하이든을 만나게 해줌으로써 베토벤의 음악인생에 힘찬 엔진을 달아주었다.

1787년 베토벤은 빈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모차르트를 만나게 된다. 당시 31세의 모차르트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베토벤이 피아노를 멋진 솜씨로 연주했는데도 모차르트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베토벤이 즉흥곡 주제를 요구하자 모차르트는 작곡중이던 〈돈 조반니〉 주제 일부를 주었다. 베토벤의 즉흥곡을 들으면서 모차르트는 외쳤다. “이 젊은이를 눈여겨보라. 이 젊은이가 머지않아 세상을 향해 천둥을 날아 있을 것이다.” 이미 음악과 한몸이 된 베토벤이었지만, 모차르트와의 만남으로 인해 그의 음악에 대한 집념은 더욱 집요해지게 되었다.

음악의 도시 빈에 정착했으나, 더 큰 시련이 운명을 가로막다

자신의 길을 발견한 영웅은 본격적으로 길을 떠나게 된다. 1792년 11월, 22세의 베토벤은 당시 음악의 도시였던 빈에 정주하였다.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가 활동했던 빈에서 베토벤은 모차르트를 능가하는 위대한 음악의 세계를 펼쳐 보이고 싶었다. 그는 음악 공부는 물론이고 생활도 힘겨워야 했다. 하이든, 요한 밥티스트 헨크, 요한 게오르크 알브레히츠베르거, 안토니오 살리에리, 엠마누엘 알로이스 피르스터 등을 스승으로 삼고 음악의 여러 장르를 섭렵했다. 빈 시절 초기에는 많은 작품을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떤 대작도 쓸 수 있는 종합적인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1796년의 수첩에 베토벤은 이렇게 적었다. “육신은 아무리 잔약할지라도 나의 정신은 꼭 이기고야 말리라! 스물다섯 살! 나도 이제는 스물다섯이다. 인간으로서의 전 역량을 드러내야 할 나이가 된 것이다.” 실제 나이는 스물여섯 살이었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작곡한 피아노를 치며 들려주는 이십대의 베토벤

그러나 사실상 베토벤에게 시련은 이제야 찾아온 셈이었다. 1796년과 1800년 사이 베토벤은 차츰 청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최고의 음악 영웅꾸는 이에게 음악이 사라져버리는 일이었다. 자신의 인생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두려워 베토벤은 여러 해 동안 아무에게도 이 사실 하지 않았다. 1801년에 이르러서야 두 친구, 의사 베겔러와 목사 아멘다에게 고백하였다. 그는 베겔러에게 편지를 보내 “내가 얼마나 나의 청력 저주하였는지 모르네! **플루타르코스**가 나를 체념으로 인도해주었다네. 그러나 가능하면 이 처절한 운명과 싸워보고 싶네” 라고 말했다. 이 그 어떤 것보다 버거운 것이었다. 과연 청력을 잃고도 위대한 음악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시련으로 인해 베토벤은 ‘영웅’이란 주제에 더욱 끌리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비참한 운명에 처한 인간을 구제할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영웅 속에 허덕이는 세상 사람들도, 병마에 시달리는 자신도 그 영웅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으리라는 꿈을 꾸었던 것이다. 그의 꿈속에 들어온 영웅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다. 그가 보기에 나폴레옹은 시민의 대변인이자 평화의 전도사로서 폭군들을 물리치고 인간의 권리를 되찾아 공화주의자였다. 나폴레옹을 생각하며 베토벤은 교향곡을 작곡하였고, <보나파르트>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러나 1804년 12월 나폴레옹이 황제 위했다는 소식을 들은 베토벤은 나폴레옹에게 바친다는 헌사 부분을 찢어버렸다. “나폴레옹은 영웅이 아니었어. 권력욕에 사로잡힌 평범한 사람 뿐이었어.” 베토벤은 자신이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 같았다. 겨우 마음을 진정한 그는 생애 최고의 대작에 ‘영웅’이라는 나폴레옹보다 더 높은 제목을 붙였다. 그렇게 <영웅교향곡>은 우리들 앞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위대한 영혼이 만들어낸 고귀한 피조물 <합창교향곡>, 그리고 천재의 최후

영웅에게 닥친 시련이 클수록, 시련을 이겨낸 영웅의 위대함은 더욱 빛나는 법이다. 음악가에게 청력이란 목숨과도 같았을 터, 그러나 베토벤은 청력을 잃은 후에도 인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였다. 베토벤이 평생에 걸쳐 작곡한 피아노 소나타 32곡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평균율과 함께 피아노 음악의 금자탑으로 손꼽히고 있다.

1808년 작곡하고 초연한 〈운명교향곡〉과 〈전원교향곡〉, 기나긴 준비과정을 거쳐 1824년에 작곡된 교향곡 제9번 〈합창교향곡〉은 위대한 영혼이 만들어낸 고귀한 피조물이다. [바그너](#)의 다음과 같은 말은 베토벤 교향곡의 가치를 분명하게 말해준다. “교향곡을 쓸 권리는 베토벤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이 최후의 교향곡은 음악을 그 특수한 요소에서 구해내고, 보편적 예술에 결합시킨 것이다. 그것은 미래 예술의 인성적 복음이다. 그 이상 진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베토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작품을 구상했다. 그는 열 번째 교향곡을 준비하면서 완숙미를 자랑하는 다양한 현악4중주곡을 작곡했다.



1812년경 제작된 베토벤의 마스크.

이 해에 베토벤은 '불면의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들 썼다.

영웅의 최후는 생각보다 허무하다. 〈[라마야나](#)〉의 영웅 라마가 강가에서 홀연히 사라졌듯이, 〈[마하바라타](#)〉의 영웅 [크리슈나](#)가 발뒤꿈치에 화살고 하늘로 떠났듯이, 불사의 영웅 [아킬레우스](#)도 발뒤꿈치에 화살을 맞아 죽고 말았듯이, 영웅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면 허무하게 떠나고 만 번째 교향곡을 준비하긴 했지만, 이미 기악과 성악을 결합시킨 교향곡의 정점 〈합창교향곡〉을 만든 이상 영웅 베토벤의 임무는 끝났는지도 모른다. 그는 조카 카를의 교육에 몰두하지만, 카를의 음악적 능력을 귀가 먼 베토벤이 제대로 알아볼 수는 없었다. 조카에 대한 집착은 병만 키우고 1827년 3월 26일 베토벤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프로메테우스의 불’과도 같은 음악 〈영웅교향곡〉, 그것은 베토벤의 인생?



오스트리아 빈에 자리한 베토벤의 무덤

이렇게 베토벤의 생애는 비범한 성장기를 거쳐 뜻을 세운 후 [프로메테우스](#)의 불과도 같 음악의 선사하고 떠난 영웅의 일대기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는 기분이 좋을 때에도 갑작스럽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았으며, 시하는 여인들과도 원만한 애정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고,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지의 악보를 한꺼번에 여러 출판사에 넘기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 그런 불안한 면까지가 로(喜怒)와 애락(哀樂)과 선악(善惡)과 호오(好惡)로 작품 속에 스며들어 우리가 그의 악에 더욱 빠져들 감명을 느끼게 하는지도 모른다.

베토벤 음악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주의 궁극적 본질과 신성(神性)을 향한 명상과 기를 함께 담고 있다. 우리가 베토벤 음악 속에서 장중함을 넘어 숭고함을 느끼는 이유가 ‘예술의 영웅’은 완벽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한 면모까지를 포함한 숭함에 있는 것이리라.

다시 〈영웅교향곡〉 이야기로 돌아가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영웅교향곡〉은 한 위대 음악가의 탄생을 알리는 장중한 신호탄이었다. 신호탄 치고는 지나치게 ‘파괴적’이었

교향곡 제3번이 진가를 인정받은 것은 한 세대 후 [베를리오즈](#)에 이르러서였다. 베를리오즈는 “이 교향곡은 착상과 처리가 아주 힘차며, 그 숭고하며, 시적인 영감을 품고 있다. 이 교향곡을 들을 때 나는 헤아릴 길 없는 깊은 고대(古態)적 슬픔에 잠긴다” 라고 말했으며, 바그너는 곡 제3번은 완벽한 인격에서 우러나온 작품이며, 감정의 유연성과 정력적인 힘이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완성예의 정진이야말로 이 작품의 성격을 뚜렷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했다. 그럼 오늘은 베토벤이 지휘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영웅교향곡〉을 들어보자. 처절한 운명(악)과

움으로 시작하여, 죽음과도 같은 시련, 고난을 디딘 부활, 마침내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이 곡이 베토벤의 삶과 꼭 닮았는가? 이 영웅이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가 결코 영웅이 될 수 없는 조건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투철한 정신력으로 마침내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글썄, <영웅교향곡>이 베토벤의 생애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필자가 추천하는 덧붙여 읽으면 좋은 책

베토벤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그의 음악을 소개하는 책이 많을 것은 자명하다. 그런 책들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도움을 빌리기로 하고, 베토벤의 생애를 다룬 진정으로 권하고 싶은 책을 추천한다.

로맹 롤랑의 <베토벤의 생애>(이휘영 옮김, 문예출판사)는 베토벤의 음악만큼이나 장중하고 활달한 문체로 그려진 베토벤 전기이다. 베토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영혼의 울림이 한 글자 한 글자에 스며 있는 아름다운 글이다.



베토벤의 생애
로맹 롤랑 지

베토벤의 삶과 음악세계
조수철 지

베토벤의 영웅교향곡
애너 하벨 셀렌자 지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며, 이 글을 읽어보라. 베토벤의 강렬한 눈빛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베토벤이 1802년 하슈타트에서 쓴 유서의 다음 구절과 함께. “모든 불행한 사람들이여! 당신과 같은 한낱 불행한 사람이 자연의 갖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우수한들과 예술가의 대열에 참여하고자 전력을 다하였다는 것을 알고 위로를 받으라!”

조수철의 <베토벤의 삶과 음악세계>와 <베토벤, 그 거룩한 울림에 대하여>(이상 서울대학교출판부)는 베토벤의 삶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을 뿐만 아니라, 작품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해설하고 그 의미를 짚어나간 특별한 책이다. 특히 신경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저자가 베토벤 음악의 심리적 의미까지를 진술한 부분은 다른 책에서 발견하기 힘든 흥미로운 대목이다. 베토벤이 영향받거나 그의 음악 속에서 표현된 동서양 상까지를 정리하여 베토벤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기도 했다. 베토벤의 모든 것이 두 권의 책 속에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토벤의 음악이 글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은 물론이다. 베토벤의 음악을 친구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두 권의 책도 친구로 삼는 것이다.

애너 하벨 셀렌자의 <베토벤의 영웅교향곡>(이상희 옮김, 책그릇)은 어린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베토벤이 <영웅교향곡>을 작곡하게 된 과 그 내용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냈다. 시디가 포함되어 있으니, 음악을 들으면서 읽으면 더욱 재미있을 것이다.



1723.3.26

종교 음악 불후의 명작 <요한 수난곡>이 성 금요일에 처음 연주되다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악기를 익히고 궁정악단에서 인
와 지휘를 맡았던 요한 세바스찬 바흐. 그는 교회음악가로 활동하던
[바로크음악](#)을 대표하는 수많은 곡을 남겨서 '음악의 아버지'라 불렸다

1723년 3월 26일은 성 금요일로 바흐가 [라이프치히](#) 시의 위촉을 받아 작곡한 총 40곡으로 구성된 [요한 수난곡](#)이 첫 연주된 날이다. <요한 수난곡>은 [마태 수난곡](#)과 더불어 바흐 종교 음악의 불후의 명작으로 꼽힌다.

족보 있는 음악가 집안의 유전자를 물려받다

클래식 애호가들의 방에 가보면 음반들이 바흐를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다. 보통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기 마련인데, 바흐보다 먼저 정리해야 만들도 보통은 그의 뒤에 둔다. 바흐는 음반정리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바흐에 대한 찬사 중에 베토벤의 말이 인상적이다. 바흐의 이름이 '물'이라는 뜻에 빗대어 베토벤은 "그는 시냇물이 아니라 크고 광활한 바다라고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베토벤은 바흐를 '화성(和聲)의 지'라고 대선배로 모셨다. 바흐는 서양음악의 출발점처럼 보이지만, 이전에도 우리에게 캐논으로 유명한 바흐 시대의 스타 [텔레만](#), [파헬벨](#)이 [델](#)이 있었고,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의 빛나는 음악가들이 있었다. 바흐는 이들 사이에서 이름 그대로 시냇물처럼 조용히 흘렀다.

서양음악의 바로크 시대는 1750년 바흐의 죽음으로 마감될 정도로 바흐는 서양음악사의 절대적인 존재이다. 이 절대성은 서양음악과 기독교 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는 평생 교회를 벗어나지 않고 신탁을 받은 사제처럼 음악에 몰두했다. 그래서 "그의 소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언표현할 수 없는 신의 명성에 오른 것"이라고 바흐의 전기를 쓴 슈바이처 박사는 말했다.



바흐 가족의 아침 기도 풍경

바흐는 음악에서만 바다처럼 풍요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두 부인에게서 스무 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이기도 했다. 더불어 바흐 집안은 약년에 걸쳐 50명 이상의 음악가를 배출한 음악 가족이었다. 이 가계의 6세대를 통틀어 예술가가 아닌 사람은 불과 두 세 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선조인 제과업자이면서 **치터**(Zither:현악기의 일종)를 연주한 파이트 바흐 이후, 중부 독일의 튀링겐 지방에서 바흐 가문은 뿌리를 내렸다. 그들은 모두 루터 정통파의 경건한 신자였다. 파이트 바흐의 장남이자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증조부인 요하네스는 **바이마르** 거리 약사로서 그는 이웃 고장에까지 전해 졌다.

그의 장남인 요한은 바흐 가문 최초의 작곡가로서 알려져 있고, 3곡의 작품이 현존하고 있다. 요한의 동생 크리스토프가 바흐의 조부로서, 활약했으며, 동생인 하인리히의 **칸타타**는 한 곡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하인리히의 장남 요한 크리스토프는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로서, 작곡도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의 동생 미하엘도 음악가였으며, 그의 막내딸 마리아 바르바라는 훗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첫 아내가 된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조부 크리스토프는 세 아들이 있었다. 장남 게오르크 크리스토프는 바흐 집안에서 처음으로 칸토르(교회 합창단장)라는 높은 직에 올랐다. 그 동생 요한 크리스토프와 요한 암브로지우스는 일란성 쌍생아로서 모두 약사가 되었다. 이 암브로지우스의 막내아들이 요한 세바스찬(이후 바흐로 표기)이다. 마치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탄생 계보를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만큼 바흐는 족보 있는 음악가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불우했지만 음악적인 축복을 듬뿍 받은 어린 시절

바흐가 태어난 아이제나흐의 성 게오르크 교회의 옛 문서에 1685년 3월23일에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된 것을 근거로, 바흐의 탄생일은 3월 21일로 추측하고 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풍성한 음악적 분위기 속에서 바흐는 자란다. 일곱 살 무렵에 성 게오르크 교회의 부속 라틴어 학교에 입학하고, 이때부터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 성가 대원으로서 일했다. 1695년에 바흐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그 이전에 돌아가셨다. 5살

잃은 바흐는 말형인 요한 크리스토프를 따라 오르도르프로 이주한다. 이 시절의 바흐는 당대 대가들의 작품 사보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형의를 몰래 빼내 필사하면서 음악 공부를 하였다.

오르도르프의 학교에서 라틴어와 루터 정통파 신학을 배운다. 형의 가족이 늘어나자 바흐는 1700년 봄에 북독일의 뤼네부르크의 고등학교에 하면서 자립한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그는 북독일 학파의 다채로운 음악을 접했고, 교회 오르간 연주의 대가 게오르크 뵘도 만나게 된다. 또 뢰르크에서 북독일 오르간악파의 노대가 라인켄의 음악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 이웃 고장인 쾰레의 궁정악단 연주를 듣고 프랑스악파의 음악도 알게 되었다. 바흐는 부모를 잃어 유년시절을 유복하게 지내지는 못했지만 음악의 축복은 듬뿍 받았다. 이러한 성장 배경이 그의 음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찍이 궁정악사로 취직, 자유분방한 행동으로 교회로부터 비난을 사기도

이후, 바흐의 음악인생은 그가 살았던 장소에 따라 대별된다. 즉 아르슈타트와 뮐하우젠 시대, 바이마르 시대, 괴텐 시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보내고 만년의 걸작들을 만들었던 라이프치히 시대이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바흐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음악가로서 취직을 해야만 했다. 1702년 궁정악사로서 일하다가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아르슈타트의 교회 오르간 연주자로 취임한다. 바흐 가문과 좋은 관계로 지냈던 이 지역의 성직자들도 바흐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여 좋은 대우를 해 주었다. 이 직책은 오르간 연주뿐 아니라, 성가대를 훈련시켜야 했는데, 18세인 바흐는 젊은원들과 길거리에서 주먹으로 치고 받기도 했다는 일화가 남아있다. 근엄하고 종교적인 이미지의 바흐도 혈기방장한 젊은 시절이 있었다.

또한 젊은 바흐는 휴가 기간을 지키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행동했다. 지역의 성직회의에서는 그의 무책임과 성가대의 훈련을 게을리 했다는 결의로 바흐를 비난했고, 결국 성직회의와 충돌한 바흐는 1707년 6월에 중부독일의 소도시 뮐하우젠 성 블라지우스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로 옮겨 온다. 그리고 그 해 10월에 육촌 누이동생인 바르바라와 결혼했다. 이들의 일곱 자녀 가운데에서 장남인 빌헬름 프리데만과 차남 칼 필리프 에마누엘은 특히 뛰어난 음악가로 성장했다. 뮐하우젠에서의 바흐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도다>를 작곡했다. 북독일악파의 양식에 의한 이 칸타타는 바흐의 생전에 인쇄, 출판된 단 하나의 교회 칸타타이다. 당시의 뮐하우젠은 다분히 교리주의에 빠져있던 루터 정통파와 개인의 종교 감정을 무시 여기는 **경건주의**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바흐 집안은 대대로 루터 정통파였지만, 바흐는 경건파로 마음이 끌려 그 영향은 그의 작품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바이마르로 옮겨 본격적인 '오르간 곡 시대'를 열다

1708년 7월에 바흐는 바이마르에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 이곳에서 오르간 연주자로도 이름을 날렸고, 작곡한 곡들은 점점 더 원숙해져 갔다. 교회의 오르간은 바흐가 원하는 대로 개조되었고, 이 악기에서 그의 오르간 곡들이 다소 탄생되었다. 그래서 바흐의 바이마르 시대를 그의 '오르간 곡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곳에서 바흐는 **비발디**를 중심으로 하는 이탈리아 협주곡을 알게 되었다. 바이마르의 궁정은 이탈리아에 문호를 열어서, 궁정악단에서는 이탈리아의 협주곡이 자주 연주되고 있었다. 독일 음악의 울타리에서 자란 바흐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다.

여행을 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바흐이지만, 바이마르 시절에는 카셀,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외에도 1713년에는 헨델의 탄생지로 유명한 할레까지 돌아다닌다. 바흐의 매력에 빠진 바이마르의 영주는 그의 봉급을 올려주었고, 1714년 3월에 그를 궁정악단의 콘서트 마스터로 임명했다. 이로써 매월 1곡의 칸타타를 작곡하여 연주하는 일이 바흐의 새로운



직무가 되었으며, 1714년 이후 바흐의 활동은 칸타타에만 집중된다.

바흐 친필 악보

바이마르에서 바흐는 텔레만과 친교를 맺었다. 바흐에게 모인 제자도 많았지만, 영주와 그의 조카 사이에 권력다툼이 일어나 양쪽에 다 친했
호는 그 사이에 끼어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 영주가 허락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 바흐는 바이마르를 떠났다. 이 시기에 뛰어난 종교시인 노
스터와 프랑크의 가사에 의한 〈자, 오라 이교도의 구세주여〉, 〈하늘은 웃고 땅은 환호 하도다〉, 〈오라, 그대 달콤한 죽음이어〉 등의 명작이
다.

두 번째 아내를 맞아 열 세 명의 자녀를 낳고 가정과 음악 모두 충만한 삶을 보내다

바흐는 괴텐 시대(1717~1723)와 라이프치히 시대(1723~1750)에 왕성한 활동을 했다. 바흐와 더불어 헨델은 항상 같이 거론되는 바로크 시대
장들이다. 바흐는 일찍부터 헨델의 작품을 알고 그를 높이 평가했는데, 헨델이 런던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1719년 10월에 헨델의 고향
레에 갔으나 헨델이 떠난 뒤여서 결국 이 두 거장은 평생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헨델은 바흐와 더불어 서양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린다.
가 바흐와 헨델에 대한 이런 음악사적인 은유를 말해주자, 어떤 이가 두 사람은 언제 결혼했냐고 해서 웃었던 기억이 난다.

1720년에는 13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바르바라가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난다. 지독한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년 후 소프라노
레나를 아내로 맞이한다. 두 사람 사이에서 13명의 자녀가 태어나고, 막내 요한 크리스티안은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다. 바흐는 고맙고 사랑
젊은 아내의 애정에 보답하기 위하여 2권으로 엮은 〈안나 막달레나 바흐를 위한 클라비어 소곡집〉을 쓴다. 괴텐에서 바흐는 많은 제자들을
훗날의 편지에서 '괴텐에서 일생을 마칠 작정이었다.'고 술회할 정도로 음악가로서 작곡도 많이 하고, 생활이 충만했지만, 바흐는 이 고장을
라이프치히의 교회 음악가가 된다.

라이프치히 시절 7년 동안 140곡 이상의 교회 음악 작곡

바흐의 라이프치히 생활은 시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로 힘겨웠다. 1722년 6월에 성 토마스 교회 칸토르가 별세를 해서 그 후임으로 선택되었
월 중순에 취임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바흐는 성 토마스 교회의 칸토르가 되었고 사망하기까지 27년 동안 그 지위에 있었다. 칸토르는 교회
을 작곡하고 연주할 책임자이기도 하였다. 성 토마스와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일요일마다 교회 칸타타가 연주되었고, 성 금요일에는 대규모
난곡이 연주되었다. 바흐는 1723~1729년 사이에 140곡 이상의 교회 칸타타를 비롯하여 〈마태 수난곡〉, 〈마니피카트〉 등을 작곡하였다.



1750년 7월 죽음을 앞두고 그려진 초상화

18세기 중엽은 음악분야에서도 크게 양식이 바뀌기 시작한 때였다. 인간의 이성과 자연
정을 추구한 계몽사상은 바흐의 음악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은 복잡한 대위법의 음
으로부터 단순 명쾌한 곡조를 선호했고, 교회음악도 보편적인 양식에서 주관적인 감정
현을 구하는 〈다감(多感)양식〉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1747년에 바흐는 포츠담의 유명한 계몽군주의 궁정을 방문한다. 왕은 바흐를 환영하고,
호도 왕이 제시한 주제로 즉흥연주를 들려주었다. 이 연주가 〈음악의 헌정〉으로 탄생했
1749년 5월 뇌일혈 발작과 함께 그의 시력은 급속하게 감퇴되어 그 뒤로 직접 곡을 쓰
것이 불가능해졌다. 작곡 중이던 대작 〈푸가의 기법〉이 중단되고 미완성인 채로 남겨진

1750년 3월 말부터 4월에 걸쳐 두 차례의 눈 수술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해 끝내 바흐
시력을 잃고 말았다. 7월18일 무렵에 한때 시력을 회복하였으나 다시 뇌일혈 발작을 일
켜 10일 후인 1750년 7월 28일 오후 8시45분에 세상을 떠나, 성 요한 교회의 묘지에 안
되었다.

소박한 성품으로 생전에 자서전을 남기지 않았지만 사후에 크게 평가되다

바흐와 같은 인물의 음악적인 업적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 평론가들은 그를 '작업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평생 교회에 면서 묵묵히 오선지에 신의 음성을 기록한 삶이었다. 식물들도 바흐의 음악을 들으면 잘 자란다고 한다. 그는 생전에 1등이 아니라 2등이었지만 서전의 출판을 권하기도 했지만 거절한 것으로 보아 그의 성품은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항상 경건하고 소박하게 자신의 일을 다 했다. 그의 삶은 그의 이름으로 사후에 평가된다는 전범을 바흐는 21세기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평가는 기다리는 다. 진인사 대천명의 경구를 바흐에게서 나는 본다. 괴테는 <평균율곡집>을 듣고 이렇게 바흐를 노래했다.

"듣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오.
소리가 마음에 속삭이는 것을
생활의 차디찬 나날 속에서
따스함과 빛을 내리시기를"

필자가 추천하는 덧붙여 읽으면 좋은 책

<요한 세바스찬 바흐>(크리스토프 볼프 지음, 변혜련 옮김, 한양대학교 출판부)를 우선 권한다. 이 책은 현재 바흐 연구의 최고권위자로 꼽히는 미국 하버드대 크리스토프 볼프 교수의 저서를 2007년 최신 발굴 정보까지 반영한 것이다. 바흐가 음악가로서 이룩한 업적과 동시대의 여러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음악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했다. 또한 <바흐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들>(음악세계)은 다양한 음악양식, 다각도의 학문적 연구를 통해 예술가들과 학자들이 본 바흐에 대한 에세이를 소개한다.



<바흐의 생애와 예술 그리고 작품>은 1802년 출판된 바흐의 첫 평전. 기록을 잘 남기지 않은 바흐의 음악을 위해 저자인 요한 니콜라우스 포크는 바흐의 두 아들을 통해 자료를 모았다. 바흐 전기의 1차 자료로서도 의미가 깊은 책이다. 좀 더 깊이 있는 바흐를 읽기 원하는 소수의 독자를 위해 음악세계사에서 나온 <바흐-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4>를 권한다. 바흐의 악보와 더불어 전문적인 해설이 있는 책이다.

클래식 음악가

블로그 tourya 놀자~~~ <http://blog.daum.net/einheit93>

저자 춤파탱

발행일 2011.02.28 13:45:17

 블로그